

목포,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 위한 '희망 피날레 걷기'

신안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추진 중인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 전남권 '희망 피날레 걷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희망 피날레 걷기'는 섬 거주민, 노인, 농민, 어민 등 도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을 지원하는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 홍보 프로젝트이다.

목포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월 말까지 무안, 신안, 진도 등 전남 서부권과 담양, 나주 등 중부권을 포함한 전남 14개 시·군을 방문해 국립 목포대 의대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힘쓸 예정이다.

첫 번째 방문지는 무안군과 신안군이다. 지난 6일에 만난 무안군 환경면 해운4리 부녀회장은 "시골 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작은 병원들만 있어 아픈면 타지역으로 가게 된다"며 지역 환자 유출을 걱정했다.

또, 지난 12일 만난 신안군 자은면 이장협의회장은 "섬 지역 환자들은 타지역 이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이 작은 병도 치료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경우가 안타깝다"며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같은 날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이장은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로 다른 지역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무안군 환경면 해운리 어머니들과 신안군 자은면 이장단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시작도 마침표도 목포대학교"라며 의대 유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외쳤다.

한편 전라남도도 전라남도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말 선정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희망 피날레 걷기'는 섬 거주민, 노인, 농민, 어민 등 도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을 지원하는 국립 목포대 의대 신설 홍보 프로젝트이다. /목포시 제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신안군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는 사고 감소를 위해 실질적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지역 현장 13명의 민·관·경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의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 노후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방안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차민손 교통안전 홍보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거리 및 도서지역 이동불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신안군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같이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교육부터 면허 갱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면허 갱신 순회 교육을 함께 실시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근 기자

영암군,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 청신호

영암군의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최근 삼호읍 삼포리 한 무화과 농가를 방문해 청무화과 새 품종인 집니카의 연구 재배 현황을 살폈다.

이 농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무화과 연구사업 실증 현장으로, 지난해 집니카를 보급받아 재배하고 있다.

집니카는 영암 무화과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홍무화과 '승정도 후인'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총채벌레 피해도 덜한 동시에 유통과정에서 쉽게 물러지지도 않아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날 점검에서 수확 초기 집니카의 평균 무게가 78g, 최대 무게가 100g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청무화과 '바나네'보다 평균 10g 높고, 홍무화과 평균인 87g에도 손색이 없는 무게여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은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한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방문 농가 등 실증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청무화과 재배법을 강화하고, 유통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비자에게는 더 맛있고,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주는 무화과 개발을 영암군은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 해외 도입 무화과 30여 종의 품종조사에서 시작해 우량 청무화과 품종 선발 및 지역 적응성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농가에 청무화과 품종 '집니카'를 보급해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첫삽

함평군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이 첫삽을 뚫었다.

함평군은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착공식이 전날 오후 황소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등 함

평군 주요인사 및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각 농협 조합장, 박종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상의 함평군수의 기법사를 시작으로 시삽식과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 준

공된다. 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년농업인 교류센터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향후 함평군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문수 기자

강진, 4차산업혁명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진군은 최근 '4차산업혁명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개최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2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 정기 회의를 겸해 진행되었으며, 기존 위원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군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큐리어드의 지병석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이즈윌의 이체을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드론, 스마트시티, 마케팅, 전기차, e커머스, 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신규 위

원이 위촉되었다.

지병석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인적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정구축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욱 기자

무안군, 영양교육 성료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해옥)는 어린이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최근 약 한 달간 영양교육 및 요리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영양교육은 '아침밥을 먹어야'라는 주제로 센터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 21곳 어린이 258명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아침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달걀주먹밥 만들기 등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정해옥 센터장은 "아침밥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건강한 발육을 위한 중요한 식품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vera gold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